

중국,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는 상호 관세 인하 합의 이행에 달려 있다고 밝혀

(China says US farm purchases hinge on tariff-cut deal)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양국이 상호 관세 인하 합의를 이행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관세 인하를 주요 협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총 6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2024년 수입한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도 포함됐으나, 해당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10월 수출용 곡물 운송량 전월 대비 26% 증가

(Ukraine grain transportation for exports rises 26% m/m in October, rail operator says)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 운영사 우크르잘리즈니차(Ukrzaliznytsia)는 목요일, 10월 수출용 곡물 운송량이 108만 톤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운영사에 따르면, 해당 운송량에는 다뉴브강 항구로 향하는 곡물 21만 5,010톤과 서부 육상 국경으로 운송되는 곡물 85만 4,330톤이 포함됐다.

미국 농무부 주중 농무관, 중국 2026/27년 대두 수입량 1억 1,000만 톤 전망

(USDA attache sees China 2026-27 soybean imports at 110 million metric tons)

미국 농무부(USDA) 주중 농무관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6/27 양곡연도 대두 수입량이 1억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FAS)이 발행한 해당 보고서의 비공식 전망치는 미국 농무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중국의 2026/27년 대두 수입량 전망치인 1억 1,500만 톤보다 500만 톤 낮은 수준이다.

출처: Thomson Reuters